빛고을 공무원불자 한데 모이다

광주불교연합회, 9월 25일 제1회 합동수계법회 봉행

광주시청 · 경찰청 등 연합
108명 공무원 불자 탄생
수계, 지역사회 헌신 다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는 9월 25일 관음사에서 '제1회 광주지역 공무원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들의 합동수계법회가 봉행돼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신도회장 이범식)는 9월 25일 관음사에서 '제1회 광주지역 공무원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108명의 새로운 공무원 불자가 탄생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수계식에는 광주광역시청불자회, 광주경찰청불자회, 동구청불자회, 서구청불자회, 남구청불자회, 광산구청불자회 등 5개 주요 관공서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했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도성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갈마아사리(소운 스님, 관음사 주지), 교수아사리(중현 스님, 증심사 주지)를 비롯해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무진 스님(약사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상진 스님(광덕사 주지), 법진 스님(운천사 주지), 혜준 스님(호국금강사 주지), 수암 스님(관음사) 등 10명의 증명법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도량결계 의식, 기념식, 증명계사 등단, 청정수 합수(3보사찰), 계율에 대한 설법, 수계의식, 축하공연, 사찰음식 공양으로 진행됐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단에 귀의하는 종교다. 그리고 오늘 수계를 받은 5가지 근본계율을 통해 청정한 삶을 이어가면서 수행을 하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종교"라고 강조하며, "오늘 계를 받는 삼귀의계와 오계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더욱 커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범식 신도회장도 인사말에서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처럼 처음 보리심을 내는 순간이 중요하다. 오늘 공무원 불자는 그런 보리심을 내어 자신의 깨달음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격려했다.

첫 수계법회에 참여한 공무원 불자들의 감동도 이어졌다. 이정신 광주시청 불자회장은 "법명을 받고 불자로서 첫 출발하는 자리라 큰 감동을 받았다. 공무원 불자로서 공직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광주지역 공무원불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진행한 올해 첫 연합행사인 이날 수계법회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사)빛고을나눔나무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불교단체를 위해 수계법회 외에도 템플스테이, 사찰순례 지원, 리더스아카데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쌍계총림 쌍계사 개산 1298주년 대축전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9월 29일 쌍계사 대웅전에서 개산 1298주년 및 창건1182주년 기념 대축전을 진행했다.

대축전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본 · 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유나 종성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경남 포교사단 안정임 서부지역 총괄팀장 등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영담 스님은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계기로 고산 대선사 유지를 잘 받들어 문도들과 본 말사 스님들이 '불식촌음'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헌식대 지장보살 점안식



울산 남산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9월 24일 지장정사 경내에서 헌식대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지장정사 현우 스님, 증명법사 대한불교옴조계종 총무원장 정우 스님, 전통복장 정담 스님, 청광 스님, 영선사 홍산 스님, 고견사 지성 스님, 열린선원 창윤 스님, 사다함 위하라 마힌다 스님 등 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및 관음조합창단, 구경각 밴드장, 덕산 갤러리 원장 등 대중이 참석했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울산 남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 쌍봉사 11년간 이어온 孝잔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 동부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11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번째로 진안군내 11개 읍면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분이 초청됐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진안에서 살아오면서 후배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진안군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생신 축하자리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전통 '탁발', 양동시장서 재현

지금은 사라진 한국불교의 전통 탁발의식이 시장에서 재현됐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지부장 소운)은 9월 24일 광주 양동시장 일원에서 '제3회 전통탁발재현 문화행사'를 갖고 오랫동안 잊혀진 한국의 탁발의식 재현행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소운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상임대표



동천 스님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이범식 신도회장, 김용목 양동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양동시장 상인을 위한 호박죽 나눔공양을 시작으로 희망콘서트, 조선대 풍물팀의 길놀이가 이어졌다. 이어 기념식과 탁발 행사를 통해 마련된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과 함께 만장기, 동자승, 탁발 스님, 광주운전불자회, 포교사단, 신도 등 100여 명의 긴 탁발 행렬이 양동시장을 장엄했다.

탁발을 끝낸 일행은 이어 양동시장 상인과 지역민을 위한 기도와 축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이웃위한 공양미 콘서트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9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익산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제5회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양미 콘서트는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찬불가 등 합창곡 공연, 국악인 김유라 학생, 소리야 난타팀, 지역활동 가수 등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덕림 스님은 "익산 도심에 위치한 관음사의 특성상 산사음악회 보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고민하다 공양미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관음사 신도들과 불자들이 모아주신 공양미를 익산시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대, 선운사 대웅전 기둥 실측 발표

보수공사중인 선운사 대웅보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기둥을 실제크기로 제작한 전시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는 9월 24일 선운사에서 선운사 대웅보전 기둥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지도교수 남해경)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선운사 대웅보전 5번 기둥을 실측하고 3D로 설계해 제작한 이 작



품은 4.5m×4.5m 넓이에 높이 9m에 이르는 대형 구조물로 대웅보전의 실제 기둥과 같은 크기로 제작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개막식에서 "대웅보전 건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전북대 조기환 부총장과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김만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녕 약수사 9월 25일 미륵불 점안식



창녕 약수사(회주 지암)는 9월 25일 오전 10시30분 미륵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현섭당 지암 대종사(법상종 종정)는 법어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 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불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사바세계를 비춰주시는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언제 어느때나 항상 나를 가꾸고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청주 정화사 회주 경천 스님, 대구 천궁암 회주 소운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제51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식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 및 임원진 취임식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가피와 일붕존자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붕존자님의 은,법제자 1만여 명으로 구성된 세계법왕 일붕문도회가 어느덧 51회째를 맞이하여 제51회 일붕문도의 날 기념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과 함께 임원진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림 스님

일 시 2022년 양력 10월 11일(음력 9월 16일) 화요일 오후1시~
(10월 10일 한글날대체공휴일 및 음력 9월 15일 보름법회 날이라 11일로 정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연예인 축하공연(가수 현당, 임부희, 머루, 경희 등 다수 출연), 2시부터 법요식

장 소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네비게이션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 화 정림 회장 010-3718-7900, 서병열 사무총장 010-6253-4936
배영희 사무국장 010-2705-0959, 영평사 종무소 031-676-3960

불기2566년(2022년) 10월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문장 혜운 총재 동봉 명예회장 천강 회장 정림 사무총장 서병열 합장